

호주 꺾고 亞 최강 자존심 세운다

허정무號 '유럽 가상팀' 호주와 내일 평가전 박지성 등 해외파 10명 대거 차출 승리 버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을 확정 짓고 나서 호주를 상대로 두 번째 A매치 평가전을 치른다.

지난달 12일 파라과이와 첫 모의고사에서 1-0으로 이겼던 한국은 5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김 베어백 감독이 지휘하는 호주와 맞대결을 펼친다.

내년 월드컵 본선을 앞둔 한국으로서는 호주가 유럽 팀을 가상의 맞출 상대다. 호주는 강한 체력과 압박 능력을 토대로 유럽 축구 스타일을 보여왔다.

한국과 호주는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서 나란히 조 1위를 했던 팀이라 평가전이기는 하지만 아시아 최강 자존심이 걸린 일전이다.

한국은 B조 1위로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패거리를 이뤘고 호주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월

드컵 최종예선 A조 1위로 월드컵 직행 티켓을 따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한국이 조금 밀린다. 지난 2일 국제축구연맹(FIFA)이 발표한 랭킹 순위를 봐도 호주는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 중에서 가장 높은 14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지난달보다 한 계단 떨어진 49위다. 한국은 역대 A매치 상대전적에서도 5승8무7패로 호수에 열세다.

그러나 한국은 2000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LG컵에서 심재원, 노경윤, 설기현, 이동국의 연속 골로 호주를 4-2로 물리친 데 이어 2001년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도 황선홍의 결승골로 1-0으로 이겨 최근 맞붙은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했다.

허정무 감독은 8년 만의 호주와 리턴매치를 위해 해외파들을 대거 소집하며 강한 의

욕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2일 파라과이와 친선경기 때 빠졌던 '캡틴'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7호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이청용(볼턴) 등 해외파 10명을 불러들였다.

역대 대표팀 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파 차출인 셈이다. 다만 해외파들이 국내파들과 손발을 맞출 시간이 다소 부족한 점은 걱정거리다.

해외파들은 지난 1일부터 파주 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 모여 담금질을 시작했지만 이동국(전북)과 기성용(서울), 염기훈(울산) 등 국내파 13명은 이를 뒤인 3일부터 대표팀에 합류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일 열린 부산과 포항의 피스컵코리아 결승 1차전을 이유로 '48시간 전 차출' 원칙을 고수하면서 K-리거들의 소집 일정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지난 대전 시티즌과 K-리그 경기에서 44일간 이어졌던 득점포 침묵을 깬 이동국과 '왼발 달인' 염기훈, 부활을 노리는 김남일, 설기현, 프리미어리그 조원희 등 일부 태극전사들에게는 호주와 평가전이 대표팀 내 주전 경쟁을 벌일 시험 무대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비너스 파워 리턴샷 3일(한국시간) 뉴욕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 US 오픈 테니스 대회 2라운드에서 비너스 윌리엄스(미국)가 베다니 마택-센즈(미국)에게 리턴샷을 하고 있다. 비너스가 2-0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나달, US오픈 1회전 통과

라파엘 나달(3위·스페인)이 메이저대회 가운데 아직 유일하게 우승하지 못한 US오픈 테니스대회 단식 1회전을 가볍게 통과했다.

나달은 3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대회 3일째 남자단식 1회전에서 리처드 가스케(46위·프랑스)를 3-0(6-2 6-2 6-3)으로 완파하고 64강에 올랐다.

여자부에서는 비너스 윌리엄스(3위·미국)가 베다니 마택-센즈(124위·미국)를 2-0(6-4 6-2)으로 물리쳐 32강에 합류했다. /연합뉴스

'휴직 3개월째' 이세돌 아직도 프로 랭킹 1위

휴직 3개월째에 접어든 이세돌 9단이 1위 자리를 지켰다.

이세돌 9단은 3일 한국기원이 발표한 9월 프로기사 랭킹이 9천605점으로 9천559점에 그친 2위 이창호 9단을 46점차로 따돌렸다.

휴직의 여파로 이세돌은 7월에 56점이 하락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GS칼텍스배에서 원상진 9단과 최철한 9단에겐 기권패하며 34점이 하락했다.

이세돌 9단은 두 달 사이에 90점이 하락했으나 이창호 9단과 강동윤 9단 등 추격자들이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1위 자리를 고수하면서 최장기간 랭킹 1위 기록을 23개월로 늘렸다.

1위 탈환에 나선던 이창호 9단은 물가장보배 결승에서 김지석에게 완봉패한 데 이어 한국리그에서 랭킹 22위의 김승재 3단에겐 일격을 당하는 등 랭킹 포인트를 50점이 나 빼앗기며 제자리걸음을 했다. 3위 강동윤 9단과 16점 차에 불과해 2위 자리 수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연합뉴스

“장애도 열정 못 막아요”

'손가락 두개' 포르투갈 양궁대표 로렌코 화제

제45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컴파운드(양 끝에 도르래가 달린 활) 예선 라운드에서 펼쳐진 2일 울산 국제문수양궁장. 여느 선수들과는 약간 다른 여자 선수가 눈에 띄었다.

포르투갈 컴파운드 대표인 레오노르 로렌코(19). 로렌코는 양 손가락이 각각 두 개뿐이다. 로렌코는 마치 집게와 같은 오른손 두 손가락으로는 활을 쥔 채 왼손 두 손가락으로 활 시위를 거는 기구를 잡고 파격을 조준했다.

다섯 손가락으로도 하기 어려운 일을 로렌코는 능숙한 자세로 70m, 60m, 50m, 30m에서 모두 144발의 화살을 과녁으로 쏘아보냈다.

그에게 두 손가락만으로 양궁을 하는 게 힘들지 않냐고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전혀 힘들지 않다”였다.

로렌코는 태어나면서부터 양손 손가락이 두 개씩이었다. 손가락 뿐 아니라 발가락도 두 개였다. 그러나 쾌활한 성격 덕에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별 어려움은 없었다고 한다.

로렌코는 이날 예선전에서 1천299점



로렌코는 태어나면서부터 양손 손가락이 두 개씩이었다. 손가락 뿐 아니라 발가락도 두 개였다. 그러나 쾌활한 성격 덕에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별 어려움은 없었다고 한다. /연합뉴스



4일(금)
▲2009 KRA컵 탁구 슈퍼리그(13 : 50·KBS n스포츠)
▲2009 SBS코리아투어 삼삼 베네스트 오픈 2R(14 : 10·SBS골프)
▲2009 프로야구<하어로스>〈화화〉(18 : 10·KBS n스포츠·Xports) 〈두산> KIA(18 : 15·SBS스포츠) 〈SK> 두산(18 : 20·MBC ESPN)

전남, 경남 꺾고 PO행 굳힌다

6일 창원 원정...상승세 경남과 '승점 전쟁'



K-리그 순위싸움의 '다크호스' 전남과 경남이 격돌한다.

전남 드래곤즈가 6일 창원종합운동장을 찾아 경남 FC와의 K-리그 22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전남은 지난달 29일 홈에서 열린 수원과의 경기에서 2-0의 승리를 거두며 3연승을 달리고 있다.

최근 6경기에서 4승2무로 승점 14점을 쌓으며 5위까지 뛰어올랐다.

올 시즌 10골을 성공시킨 슈타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공격이 전남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전남은 최근 6경기 무패행진을 하면서 13골을 성공시켰다. 실점은 6점. 용병 슈타는 3골 3도움을 기록하며 전남 공격의 중심에 서있다.

무패행진의 전남과 격돌하게 되는 경남도 하반기 순위싸움의 키를 쥐고 있는 다크호스다.

경남은 앞선 부산, 인천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2연승중이다. 초반 부진으로 13위에 머물고 있지만 최근 5경기에서 2승2무1패를 기록하며 뒤늦게 순위싸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골키퍼 김병지를 중심으로 한 탄탄한 수비는 올 시즌 22실점으로 서울(19실점), 상무(21실점)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디오·김동찬의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공·수가 안정돼 2경기 연속 K-리그 베스트팀에 선정됐다.

이번주 21라운드 경기에서 상무가 휴식을 취하게 되면서 전남과 인천은 4위 입성의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전남이 경남과의 맞대결에서 승점 3점을 챙기게 된다면, 대구와 맞붙은 인천이 승리하더라도 골득실차에서 앞서 4위까지 치고 오를 수 있다.

반면 경남이 전남을 제압하고 승점 3점을 얻는다면 6위 팀과의 승점이 5점 차까지 좁혀지게 돼 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불씨를 살리게 된다.

선두권 진입과 6강 진입을 향한 전남과 경남의 승점 전쟁은 6일 오후 7시 시작된다. /김여울기자 wool@

北 축구대표팀 식중독...오만과 평가전 취소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에 오른 북한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려 5일(한국시간) 예정된 오만과 평가전을 치르지 못하게 됐다.

오만의 영자신문 '타임즈 오브 오만'은 3일(한국시간) "오만축구협회가 북한축구협회로부터 선수단에 식중독이 발생해 평가전을 치를 수 없게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라며 "부득이하게 평가전 일정을 취소했다"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경기중 비락맞은 덴마크 선수 다리 절단해야

지난 7월 경기 도중 비락을 맞은 덴마크 축구 선수가 다리를 잘라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미국 스포츠 전문채널 ESPN이 3일 인터넷판에 보도했다.

덴마크 FC노실렌 소속의 요나단 리히터(24)는 7월21일 2부리그 경기 도중 비락을 맞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의식은 되찾았지만 다리에 상처가 심해 잘라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연합뉴스

페암 담배냄새 간접피해 STOP!

이토바

312-1334 / 010-9917-9353

중고장수기 할인판매

이 상품은 기회입니다!

8만원~11만원

모든 장수기 할터 곳

장수기 프라자